

<2018년 4월 공무국외여행 귀국 보고서>

출장제목	해외 여행 출장 보고서			
여행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교류협력을 통한 오세아니아 대양주 교두보 확보 - 「제7회 한·호 해외동포 2세 독후감대회」 민간교류 행사 참석 계기 전북 공연단의 한국 전통문화 전파 및 매력 알리기 - 시드니 주재 공관 방문, 간담회 진행 및 협업체계 구축 - 한국어교육 지원과 제반분야 민간교류 확대 간담회 진행 			
여행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호주 			
여행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8. 4. 15. ~ 4. 19.(3박 5일) 			
보고서 작성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종원 			
출장자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	센터	센터장	이영호	
	국제진흥팀	주임	장종원	

- 해외 전북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- 오세아니아 대양주지역 교류협력 교두보 확보를 위한 출장 결과

오세아니아 대양주 상호 교류협력 거점지역 교두보 확보를 목표로 제 7회 한·호 해외동포 2세 독후감대회 참여를 통한 현지 공관 및 한인 단체와의 교류 확대,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, 현지 유관 단체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I 출장 개요

- 출장기간 : 2018년 4월 15일(일) ~ 4월 19일(목) / 3박5일
- 출장지역 : 호주 시드니
- 출 장 자 : 2명(이영호 센터장, 장종원 주임)
- 출장목적 : 문화교류협력을 통한 오세아니아 대양주 교두보 확보
 - 『제7회 한·호 해외동포 2세 독후감대회』 민간교류 행사 참석 계기 전북 공연단의 한국 전통문화 전파 및 매력전북 알리기
 - 시드니 주재 공관 방문, 간담회 진행 및 협업체계 구축
 - 한국어교육 지원과 제반분야 민간교류 확대 간담회 진행

II 주요 결과

- 『제7회 한·호 해외동포 2세 독후감대회』 참여, 한인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주최·주관단체 MOU 체결을 통한 상호 협조체제 구축
- 현지 공관 방문, 현지 단체와의 교류 확대 방안 논의 및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협조 요청
- 해외 한국어 진흥사업 관련 NSW(New South Wales)주립대학교 등 관계자 간담회 진행, TOPIK 교재 활용을 위한 협의 실시
- NSW 주정부 관계자 미팅 실시, 2023 세계잼버리대회 홍보 및 전주 국제영화제와 미디어 아트 등 국제교류분야 협력 방안 모색
- 전통문화공연 버스킹 및 홍보 진행,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고취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확보

III 세 부 내 용 (일 정 순)

□ 시드니 주재 공관 방문, 간담회 진행 및 협업체계 구축

○ 일 시 : 4월 16일(월) 11:30~15:00

○ 장 소 : 주시드니 총영사관, 한국문화원, 한국교육원

○ 참 가 자 : 이영호 센터장, 주시드니 총영사 등 5명

○ 주요내용

- 해외 전북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력 방안 논의, 한국문화원 등 사전 협의 후 공간, 프로그램 협조 및 지원 가능함
- **2021년은 한호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,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가능성 높음**
-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은 다른 한국문화원에 비해 대규모 행사를 주관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“Korean Week”, “호주 영화제”등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은 있음
- 시드니시티의 경우 서울시와 “전략적 협력관계”를 구축하고 있으며, “자매도시” 등의 결연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, **전라북도과 매칭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호주 퀸즈랜드주 「골드코스트」를 추천하며 관광 분야에 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예상함**
- (한스타일 사업)시드니 공관의 「한스타일」 사업은 전주시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 인사 방문 시 포토존으로 활용하기도함
- (한스타일 사업)오프닝 축하행사 관련 총영사관 판단은 해당 콘텐츠만으로 오프닝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기에 한국문화원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**전북도청 또는 전주시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 가능함**
- (한스타일 사업)개선사항에 대해 추후 공간 조성 시 미술, 인테리어 등 관련 분야 현지 전문가의 참여로 조성 공간 전체의 균형과 특성을 살린 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①공간 한 면만 하다 보니, 기존 벽면과의 조화 및 완결성 미흡 ②“전통”에 대한 현지 교민과 작가 사이의 온도차이 ③스토리텔링 전달 부족 등이 있었음
- 전주의 한지소품은 총영사관에도 진열 되어 있는 등 만족도가 높으며 “전라북도” 또는 “전주”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임

□ 한국어교육 지원과 제반분야 민간교류 확대 간담회 진행

- 일 시 : 4월 16일(월) 18:30~20:00
- 장 소 : 한국교육원 인근 식당
- 참 가 자 : 이영호 센터장, NSW 주립대학교 교수 등 4명
- 주요내용
 - 한국교류재단 편당으로 NSW 주립대학교 한국어학과가 개설 되었으며 2005년 인문언어학부 전공프로그램으로 전환함
 - 1,2학년의 교재는 자체 개발해서 활용하며, 3,4학년은 한국을 묘사한 교재를 사용하여 언어와 문화를 함께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음
 - 국내 유명대학(서울대, 카이스트, 포스텍 등)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, 전라북도 지역대학의 특화된 부분에 대해 학부 차원 교류 가능성 있음
 - 000 교수 인솔로 한국학 교육학생 5명이 내년 국내 방문 예정이며 전통문화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전라북도 초청 가능
 -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서 발행하고 있는 영문홍보잡지인 JB LIFE와 TOPIK 교재 현지 활용 방안 검토 요청함

□ 『제7회 한·호 해외동포 2세 독후감대회』민간교류 개시

- 일 시 : 4월 17일(월) 11:00~19:00
- 장 소 : 시드니 한인회 및 인근 식당
- 참 석 자 : 이영호 센터장, 재외동포재단 이사장,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회장, 시드니 한인회장 등 유관단체 대표 12명
- 주요내용
 - 현지 한인 단체 및 축제에 관련된 현황을 공유하였음
 - 9월 22일(토) 예정된 『문 페스티벌』은 호주 총리 참석 예정인 가장 중요한 행사로 한인회에서 코리안 페스티벌로 발전시킬 계획이며, NSW 주정부로부터 최대 3만불 지원 받을 예정임
 - 한호예술재단은 호주 현지 미술 작가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센터와 상호 교류 및 협력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
 - 호주 한글학교협의회는 대양주지역 55개 한글학교(학생수 6,000명) 규모의 단체로 한글교육교재, 한국 방문, 교환학생 등 관심이 있으며, 센터의 한글교재 및 영문 잡지 홍보 협조 요청함
 - 호주 각 지역별 상공인 연합회가 1개 이상 있음으로 전라북도 특산물 판매에 대한 문의와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, 국내 관련 기관이 현지 조사를 위해 종종 방문하고 있음

- 한호예술재단 이사장은 전주 출신으로 현지에서 건강식품 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 정보, 행사 정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함

○ 기타사항

- 전라북도 전통공연팀 『두댄스』의 작품이 6편 공연되었으며 현지의 반응은 매우 좋았으며 추후 현지 공연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
- 행사 종료 후 한지 만들기 체험 진행함
-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와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및 대양주문화예술재단 3자간 MOU를 체결 하였으며,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함

□ NSW 주정부 국제교류 담당자 미팅

○ 일 시 : 4월 18일(수) 11:30~12:30

○ 장 소 : 시드니 타운홀 하우스

○ 참 가 자 : 이영호 센터장, NSW 주정부 담당자 등 4명

○ 주요내용

- NSW International Engagement Coordinator의 역할은 문화, 예술, 교육,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협력을 조율하는 부서임
- 대외 협력과 관련하여 시드니는 6개의 자매결연 도시(샌프란시스코, 나고야, 웰링턴, 포츠머스, 광저우, 플루먼스)와 5개의 우호도시(파리, 아테네, 베를린, 더블린, 우한)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과는 “전략적 협력관계”임(자카르타, 광둥, 싱가포르 등)
- 시드니와 서울 간 문화포럼, 글로벌 비즈니스 써밋 등의 교류가 진행될 예정임
- 전라북도와는 문화 교류와 교육 분야, 농업분야(스마트팜과 바이오텍), 전주 국제영화제 등에 관심을 보였으며 추후 전라북도와 연계하기 위한 “전략적인 협력관계”에 대한 고민과 상호 교류가 유익해 보임
- 추후 상호 교류에 대한 협조 약속함

□ Create NSW Arts, Screen & Culture 담당자 미팅

- 일 시 : 4월 18일(수) 14:30~16:00
- 장 소 : Create NSW 사무실
- 참 가 자 : 이영호 센터장, CNSW 관계자 등 5명
- 주요내용
 - Create NSW는 주정부기관으로 문화, 예술, 영상분야의 펀딩, 행사 기획 및 지원의 업무를 하는 부서임
 - 전주 국제영화제 홍보 자료와 독립영화 인프라에 관한 정보를 사전 전달하였으며, 영화 산업 분야 교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냄
 - 호주는 영상분야 선진국으로 할리우드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감독과 배우들이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생산해 내고 있음
 - 전라북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추후 상호 교류에 대한 협조 약속함

□ 전북 전통무용단 마틴플레이스 버스킹 공연 실시

- 일 시 : 4월 18일(수) 13:30~15:00
- 장 소 : 마틴플레이스
- 참 가 자 : 장종원 주임, 두댄스 공연단 등 6명
- 주요내용
 - NSW 버스킹 퍼밋 수령 후 시드니 금융가 『마틴플레이스』버스킹 공연 실시함
 - 4편의 작품 공연 실시, 현지인들에게 전라북도 홍보물 전달 및 소개 하였으며, 해당 영상을 촬영 하여 추후 홍보용으로 활용 예정임

IV 평 가

-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와 대양주문화예술재단의 초청으로 진행한 해외 전북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현지 공간 및 유관단체 미팅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사업 확대 추진 기반 마련
- 한국어교육 관련 현지 관계자 미팅으로 센터가 가진 친 전북 인재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가 포함된 교재 보급 루트 확보
- 유관재외공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기대
- 호주 정부기관과 전라북도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반분야 국제교류 증진 방안 모색

V 참고 사진



주시드니 총영사관 방문



주시드니 한국문화원 방문



주시드니 한국교육원 방문 및 UNSW대학교 교수 간담회



한인회 간담회



제7회 해외동포 독후감대회 시상식 및 MOU 체결



전통문화 공연 및 한지만들기 체험



NSW 주정부 방문 / 마틴플레이스 버스킹 공연 및 전라북도 홍보